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2016. **03**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사무엘하

마가복음·요한복음·누가복음·마태복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Galatians 2:20)

충현의 만나

Contents

- 2 3월 일정표
- 4 매일묵상 사용안내
- 6 기도제목표
- 7 매일묵상 Q.T.
- 71 영어본문말씀

「충현의 만나」는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03

2016 March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3,11,12교구	2 4,13,14교구	3 5,15,16교구	4 6,17,18교구	5 전교인
6 전교인 제2차 성찬식	7 1,7,8교구	8 2,9,10교구	9 3,11,12,17교구	10 4,13,14,18교구	11 5,15,16교구	12 전교인
13 전교인	14 6,17,18교구	15 1,7,8교구	16 2,9,10교구	17 3,11,12,15교구	18 4,13,14,16교구	19 전교인
20 전교인 종려주일	21 전교인	22 전교인	23 전교인	24 전교인	25 전교인 성금요일 (제3차 성찬식)	26 전교인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						
27 전교인 부활주일 부활주일 특별찬양예배	28 전교인	29 15교구	30 6교구	31 16교구		

교회 주요 일정

3월 6일

제2차 성찬식

3월 20일

종려주일

3월 21~25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3월 25일

성금요일(제3차 성찬식)

3월 27일

부활주일

부활주일 특별찬양예배

3월, 개인 전도 계획

‘충현의 만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도록 매달 발행되는 Q.T.(Quiet Time) 소책자이다. ‘충현의 만나’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새벽기도회의 본문을 기준으로 ‘본문 해설’과 ‘묵상 질문’, ‘적용 질문’의 형태로 구성된 ‘충현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1. 첫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목을 정하라

우선 본문을 읽은 후,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각 문단의 핵심단어나 구절을 찾아 표시하고 본문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만들거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다. 충현의 만나 매일묵상은 2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 상단의 날

짜 옆에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을 뽑아 제목으로 달아 놓았다. 본문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제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묵상하는 중에 본문의 주제를 더 적확(的確)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 제목을 만들어 빈칸에 적어보는 것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라

본문을 쓴 인간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왜 기록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정보는 성경 본문 안에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 각 권의 개요를 설명한 책이나, 성경 사전, 혹은 도서관에서 주석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피하는 게 좋다. 많은 사이버, 이단들이 자신들의 블로그 등에 이단 교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는 해설을 퍼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문의 의미를 구체화 하라(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히라)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2.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

말씀을 묵상한 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옛 생각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내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

가까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으로 점검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붙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 보려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2~3).

- ① 충청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 ③ 충청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④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⑤ 충청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⑥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⑦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해당 교구 전도와 동역 교회 전도 지원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⑧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⑨ 충청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가평·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⑩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가의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은총을 베푸는 것 같이

본문 사무엘하 10:1~8 찬송가 433장

>>> 본문 해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조문사절을 보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모압과 암몬 경계지역에 머무는 동안 그가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성해지는 다윗왕권을 불안하게 지켜보았던 암몬 지도자들은 다윗의 의도를 오해했고, 조문사절단을 전쟁포로처럼 대우했습니다. 그들은 남자를 상징하는 수염을 절반까지 잘랐고,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하는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3~4절). 하논의 이러한 행동은 다윗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왕이 된 하논은 자신의 군사적, 정치적 힘을 과시하듯 만용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은 주변나라에서 용병을 구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였습니다(6, 8절). 하논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더 많은 세력을 모아 다윗에게 대항했습니다.

암몬은 다윗의 호의를 수치로 갚은 것도 모자라 전쟁을 도모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대적할 때 교회도 그들과 맞서 전쟁을 벌여야 할까요? 욕하고 미워하고 그대로 갚아주어야 할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가 세상의 방식인 미움과 다툼으로 나아가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오히려 이러한 때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섬김의 본이 되셨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마 20:28)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어떠한 오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섬김의 본이 되시며,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¹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²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풀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³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니 ⁴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불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⁵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려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⁶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 르흠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이만 명과 마이가 왕과 그의 사람 천 명과 돕 사람 만 이천 명을 고용한지라 ⁷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⁸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흠 아람 사람과 돕과 마이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담대하라

본문 사무엘하 10:9~19 찬송가 357장

>>> 본문 해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람 군대를 향해 과감한 공격을 감행했고, 힘있는 공격에 겁먹은 아람 군인들이 도망하자 다른 용병들과 암몬 군대도 성 안으로 도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정도에서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14절). 그러나 아람 군대는 이 전쟁에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 소바 왕 하닷에셀은 군사령관 소박의 지휘하에 군대를 다시 규합했고 본토로부터 증원군을 받아 병거와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다윗 왕이 직접 출전하여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17절). 이번에도 이스라엘 군대의 강력한 공격을 받은 아람군대는 패주했고, 군사령관 소박을 비롯한 4만 명의 전사자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대승리였습니다. 이 승리의 결과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왔으며, 아람과 동맹관계에 있었던 작은 나라들도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어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19절). 이제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는 이스라엘에 도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승리와 강성함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마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으며 주님의 재림 때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열방이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내 능력보다 더 크게 보이는 도전들에 직면할 때 내 눈이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승리와 강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
 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 치고 ⑥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
 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 치게 하고 ⑦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⑧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⑨ 요압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⑩ 암
 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⑪ 아람 사람이 자기
 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⑫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 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
 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⑬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매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
 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
 우더니 ⑭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칠백 대와 마
 병 사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⑮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
 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충현의 만나 • 11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본문 사무엘하 11:1~13 찬송가 280장

》》 본문 해설

다윗을 넘어지게 만든 것은 외적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광야를 걸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실패는 내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왕권이 확립되고 주변국의 위협도 현저히 약화되자 다윗은 점점 긴장을 풀게 되었습니다. 영적 긴장이 늦춰지자 내재하여 있던 본능적 욕심이 통제하기 어려운 욕망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가 가진 뛰어난 지성과 엄격한 도덕성도 이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밋세바는 자신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던 신복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녀와의 동침은 십계명 중 7계명과 10계명을 범하는 죄였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 은밀히 뿌려진 죄의 씨앗은 밋세바의 몸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사건의 전모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후방으로 불렀고 밋세바와 동침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의도는 숨기고, 마치 그를 특별히 총애하는 양 선물과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의 고결한 신앙적, 도의적 양심조차 부끄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기만적인 행동은 우리아의 고결한 태도와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헛 족속 출신의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우리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보다 더 의로웠습니다.

범죄는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죄의 결과를 숨기거나 피하기 위한 고도의 기만적 술책은 사람을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추한 결말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는 어떤 은밀한 죄악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더 앞드릴 때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 기도 제목

항상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영적 민감함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¹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임문 자손을 멸하고 람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²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느니라 ³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⁴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⁵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⁶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헷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⁷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⁸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⁹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¹⁰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¹¹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 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¹²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¹³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본문 사무엘하 11:14~27 찬송가 310장

>>> 본문 해설

죄를 숨기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고 다윗은 더 큰 계책을 하달했습니다. 그는 우리아가 대적 암몬의 손에 전사당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게도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고 다윗의 의중을 알아차린 요압은 완전 범죄를 위해 의도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였고 몇몇 군사들도 함께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행하는 데 왕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부하 요압도 그 죄에 연루되었습니다. 비록 명령에 복종한 것이긴 하지만 요압도 자기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들의 기만적 행위로 인해 의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군사들이 원수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죄와 그 죄를 정당화하려는 노력은 스스로를 사탄의 편이 되게 하고 또 다른 무서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요압의 보고 방법은 그 보고를 전달하는 전령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교묘했습니다. 또한 다윗도 이중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정직하고 순전한 양심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밋세바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슬피하면서 장례의식을 마쳤고, 장례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밋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여인을 얻었지만, 이전과는 달리 현실의 만족을 추구하는 욕심이 다윗의 내면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성은 무의식 세계에 간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위임받은 권세를 남용하여 의로운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왕권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악한 죄인들이 오직 붙잡고 의지할 것은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 기도 제목

주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지배하여 주셔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피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 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헛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새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이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쏜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룸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처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찍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벳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헛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돌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처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헛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본문 사무엘하 12:1~12 찬송가 539장

>>> 본문 해설

다윗이 우리아를 제거하고 밋세바를 소유한 것은 완전 범죄였습니다. 설사 심복 몇 명이 알았다 해도 고대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 죄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비하심으로 인해 다윗에게 곧바로 심판을 집행하시지 않고 그가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개인적인 방법으로 나단을 보내어 말하게 하였고, 죄를 직접 비판하지 않으시고 간접적인 비유로 그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해 그 죄의 심각성을 설명하셨습니다. 다윗은 비유를 일반적인 사례로 간주하고 분노하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다윗의 판단은 바로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죄는 우리아와 밋세바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행동일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배반이고, 위임하신 것들에 대한 남용이며,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업신 여긴 행동으로 간주하셨습니다.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 자신을 향한 범죄로 간주하시고 질타하시는 하나님의 지적은 두렵습니다. 거의 모든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심을 나타내는 일인칭과 다윗을 몰아세우시는 이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자비로 형량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고하신 형벌을 훗날 그의 집에 집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를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영원히 숨길 수 없는 죄를 자복하며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²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³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므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⁴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⁵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⁶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⁷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⁸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⁹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와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헛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¹⁰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¹¹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¹²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본문 사무엘하 12:13~31 찬송가 251장

>>> 본문 해설

나단을 통해 죄를 지적받은 다윗은 바로 회개했습니다. 만일 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어도 다윗이 영적 안목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을지 모릅니다. 적어도 비난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의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둘러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정지선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남겨진 큰 오점은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과 그의 왕권이 반영해야 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크게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윗과 밋세바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이를 알았던 다윗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울고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고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아이의 장례 이후 밋세바가 곧 임신하여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회개한 다윗을 결국에는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회개한 그에게 전쟁에서의 승리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왕의 도시를 거의 정복할 즈음, 전투를 이끈 요압은 왕의 영예를 위해 다윗에게 참전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했고 정복한 성에 자신의 이름을 둬서 정복자로서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적들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쟁취함으로써, 마침내 명실상부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무한히 발전할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회개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신 결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이 세대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 굴복하기보다 주님 앞에 굴복하며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18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라 19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20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매 심히 앓는지라 21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22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23 이제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24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25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와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26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27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28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9 다윗이 그의 아내 밋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30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31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32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33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 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34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 곳을 쳐서 점령하고 35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36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본문 사무엘하 13:1~14 찬송가 312장

》》 본문 해설

다윗의 장남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에 대한 깊은 연모의 정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암논의 감정이 욕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순전히 다말의 외모에 끌렸기 때문입니다. 암논은 절제할 수 없는 욕정으로 몸이 수척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규범과 현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무의식의 성적 욕망을 통제할 수 없는 환자였습니다. 이러한 암논에게, 간교하고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이며 사촌인 요나답이 다말을 가까이 둘 수 있는 기만적인 방법을 조언했습니다. 절제할 수 없는 욕망은 종종 기만적 방법을 찾습니다. 이들의 모의는 다윗 가문의 어두운 미래를 직감하게 합니다. 또한 암논의 욕망은 다윗이 밋세바를 향해 가졌던 욕망과 기만적 범죄를 떠올리게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성적 욕망은 집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암논은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하여 다말의 간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든 은밀한 환경으로 다말을 끌어들이고 억지로 동침하였습니다.

이러한 암논의 야만적 범죄는 많은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고 자신의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위 계승자라는 사실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성껏 간호하려던 다말의 선한 의도를 오히려 악용했습니다. 또한 이 일이 다말에게 큰 심리적 상처를 주었으며, 이 일로 그녀가 평생 사회적인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조차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면적 욕망에만 집착하고 있는 암논의 야만성은 타락한 본성의 노골적인 모습입니다.

》》 기도 제목

절뚫된 육체의 정욕에 포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소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³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체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⁴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체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⁵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⁶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⁷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⁸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⁹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의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¹⁰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본문 사무엘하 13:15~29 찬송가 486장

>>> 본문 해설

다말에 대한 압논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욕정이었습니다. 강압에 의해 형성된 관계였지만, 압논은 회개하고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말과 결혼했어야 했습니다(신 22:28~29). 그러나 도리어 다말을 증오하며 내쫓는 압논은 반사회적 행동장애자처럼 보입니다. 압논의 폭행은 다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우아한 채색옷으로 단장하고 사랑받던 공주 다말의 미래를 한순간에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녀는 압살롬의 집으로 옮겨 칩거하면서 처량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격노했으나 자신의 이전 범죄와 예언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던지 특별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았지만 압살롬의 마음 속에 꿈틀거리는 복수심은 다윗과 압논이 긴장을 늦출 기회를 찾으면서 계속 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목축사회의 결실기인 양털 깎는 날에 맞추어 치밀하게 복수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에 그는 자신의 목장으로 원수인 압논과 모든 왕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왕궁에서 벗어난 목장은 자신의 뜻에 따라 신복들이 행동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부하들을 시켜 술기운에 긴장과 무장이 완전히 해체된 압논을 죽였습니다. 다말과 억지로 동침할 때 기만적으로 계획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압논은 압살롬의 신복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르우벤이 성범죄로 장자의 축복을 상실했던 것처럼(창 49:3~4), 압논도 모든 권한을 잃어버리고 죽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욕심에게 문을 여는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다른 대상을 왕으로 삼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도 제독

주님, 우리를 해롭게 한 사람에게 반응할 때 무모한 복수를 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적으로 대응하도록 지혜를 주소서.

16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람
 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17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울
 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18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
 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19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
 는 법이라 20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21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
 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22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
 니라 23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
 에 대하여 질질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24 만 이 년 후에 에브라임 결 바
 알하술에서 압살롬이 양 털을 깎는 일이 있으며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
 고 25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 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
 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26 왕이 압살롬에게 이
 르되 아니라 내 아들이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
 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27 압
 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28 압살
 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29 압살롬
 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
 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30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
 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본문 사무엘하 13:30~39 찬송가 266장

>>> 본문 해설

왕자들이 모두 살해되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누군가 장남인 암논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나머지 왕자들도 모두 죽은 것으로 잘못 보고했던 것 같습니다.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절망감과 극한 슬픔으로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평소 눈치 빠르고 간교했던 암논의 친구 요나단은 압살롬이 복수심에서 암논만 죽였을 것이라는 말로 애써 다윗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간음과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삼하 12:10)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또한 암논의 범죄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여 압살롬이 감정적으로 보복하는 화를 불렀다는 생각에서 깊이 후회했을 것입니다. 욕망을 채우고자 행하는 범죄는 얻음이 아니라 상실을 가져옵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다윗 왕의 처벌이 두려워 그술로 도망쳤습니다. 그술 왕가가 압살롬의 외가여서 그에게 안전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압살롬의 어머니 마아가는 그술 왕 달매의 딸이었습니다. 이 두 국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다윗은 압살롬을 체포하려 사람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압살롬에 대한 분노보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는 죄책감에 기초한 동정심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3년이 지나도록 떠난 아들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깊은 슬픔에서 헤어 나지 못했습니다. 장남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었고, 차남 길르압은 일찍 죽었던 것 같으며, 삼남 압살롬조차 범죄자가 되어 국외로 도피함으로써 다윗 왕가의 왕권 계승이 다윗의 간음죄 이후로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죄를 가볍게 여기는 생각은 간교한 마귀가 교회에 뿌린 씨앗입니다. 그런 생각이 한순간도 내 안에 머물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된 책임으로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며 늘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아래 바르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소서.

*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
 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
 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 요
 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니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
 도 심히 통곡하니라 *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훔의 아들 달매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
 서 거기에 산 지 삼 년이라 *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다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왕이여 도우소서

본문 사무엘하 14:1~11 찬송가 408장

>>> 본문 해설

법과 정의를 집행해야 할 왕의 직분에서 살인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범죄를 저지른 자는 자신의 아들이었고, 이는 자신의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그 범죄의 원인이 자신의 탓이라고 여기며 그를 깊이 동정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다윗과 아버지로서의 다윗 사이의 역할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다윗은 심적으로 병들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의 충성되고 노련한 심복인 요압은 암살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정의롭고 강직하면서도 약자에 대해서는 여리고 관용적인 다윗 왕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그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요압의 지시에 따라 드고아 여인이 자연스럽게 연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경우와 유사한 이 송사를 심리하였습니다. 그는 죄인에게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정의를 세우는 일과, 그 형벌이 죄인의 악한 어머니와 가계의 생존 희망을 단절해 버릴 결과 사이에서 관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생존을 애원하는 약자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단언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삶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체험한 노련한 왕으로서 약자의 고통을 깊이 공감할 수 있었기에 여인의 소망을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비록 삶의 현상이 힘들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우리를 주의 자녀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다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주님,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¹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²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 같이 하고 ³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⁴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⁵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나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⁶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죽인지라 ⁷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꿈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 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⁸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⁹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¹⁰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¹¹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본문 사무엘하 14:12~24 찬송가 70장

>>> 본문 해설

진정한 조연자라면 상대방이 문제를 바로 보도록 도와야 합니다. 드고아 여인은 두 아들 이야기를 꾸며 다윗에게 들려주고 그의 연민을 자극했습니다(6~11절).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고 집으로 데려오지 않는 처사가 이와 같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했습니다(13절). 이스라엘 백성은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유독 왕만이 이를 원하지 않으므로 부지중에 죄를 범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자비를 끌어들이려 하나님은 내쫓긴 자가 버림받지 않도록 생명을 지켜 주신다고 호소했습니다(14절). 하지만 여인의 거창한 말들은 압살롬이 저지른 죄의 본질을 흐리고 다윗의 바른 판단을 막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드고아 여인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18절). 여인의 배후에 요압이 있음을 알았지만(19절),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온 압살롬의 얼굴은 정작 보지 않았습니다. 요압의 계획이 성공한 듯 하였지만,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다윗이 그를 용서하지도 처벌하지도 않는 애매한 상태였으며, 오히려 예루살렘 안에서 서로 불편한 심기를 숨긴 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한 자비와 용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죄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은 채 인간적인 동정심에 호소한 화해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유발시키는 부작용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인간의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세상적인 지혜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처리하게 하옵소서.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갈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니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쭙 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끝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 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니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본문 사무엘하 14:25~33 찬송가 218장

>>> 본문 해설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에도 2년 이상이나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냈던 압살롬은 더 이상 다윗의 선처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28절).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선한 요압으로 하여금 다윗과의 화해를 주선토록 강요함으로써(29~32절) 마침내 다윗 왕을 만나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자신의 죄(삼하 13:23~29)를 생각하고 근신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근신한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 없을뿐더러 그는 오히려 그의 외모를 자랑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25~27절). 그리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요압을 통해 해결하려고 추수기에 이른 요압의 보리밭에 일부러 불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3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왕께 나아가 압살롬을 부를 것을 요청했고, 5년 만에 다윗과 압살롬은 화해의 입맞춤을 했습니다(33절).

관계가 깨어지면 오랜 세월이 흘러도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내가 먼저 이웃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의 손길을 내밀게 하소서.

26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 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27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 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이백 세겔이었더라 28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29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30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31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발이 내 발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발에 불을 질렀더니 32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발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33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 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34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본문 사무엘하 15:1~12 찬송가 251장

>>> 본문 해설

다윗과 재회한 압살롬은 서서히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용을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 경호부대 50명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스스로 정치적인 기반을 얻기 위해 물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1절). 압살롬은 일찍이 성문에 가서 재판을 하러 온 사람들을 옹호하며 재판관의 직무태만을 간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장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압살롬은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지만, 성경은 압살롬의 행동을 도적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사실을 조작하여 다윗의 무능함을 부각하고 자신의 유능을 알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압살롬은 여호와께 맹세한 서원을 위하여 헤브론으로 가야한다고 다윗을 속였습니다(7절). 그러나 그가 헤브론으로 가는 목적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함이었지, 서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나팔소리로 압살롬이 왕 됨이 알려지자, 청함 받은 200명과 심지어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까지도 아무런 의심없이 압살롬을 따랐습니다(11~12절). 무비판적인 행동은 때로 불의한 자와 협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 기도 제목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위선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오십 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¹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은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²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배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³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⁴ 사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⁵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⁶ 그 때 청함을 받은 이백 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본문 사무엘하 15:13~23 찬송가 290장

» 본문 해설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사수하기보다 후궁 10명만 남겨두고 도망하였습니다(14~16절). 다말의 복수를 위해 2년 동안이나 기회를 엿보다가 암논을 죽인 압살롬의 강한 복수심을 생각한 다윗은 급하게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비참한 도피 생활은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기도 하였고, 또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습니다(삼하 12:11, 16:10~12). 그러나 불효를 자행하는 아들과는 달리 고난 가운데서도 왕에게 충성하는 신복들이 있었습니다. 잇대는 블레셋 가드에서 이스라엘로 정치적 망명을 하여 다윗의 부하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소식을 듣고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호위하기 위해 왔습니다(18절). 다윗은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힘을 상실하고 쫓겨난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잇대는 다윗 왕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21절). 쫓겨난 나그네를 따르는 잇대가 고맙기도 했지만 다윗 역시 잇대를 진심으로 염려하면서, 돌아가서 헤브론 왕인 압살롬을 섬길 것을 권면했습니다. 다윗은 잇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기를 기원했습니다(20절). 바로 이것은 다윗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이 당하는 위기를 면하려 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려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련을 만날 때 불평과 원망을 하기 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시련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 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 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열 명을 왕이 남겨 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불렛 사람과 밋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육백 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 때에 왕이 가드 사람 잇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잇대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와 살아 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 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잇대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잇대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본문 사무엘하 15:24~37 찬송가 337장

>>> 본문 해설

사독과 레위인들은 다윗을 위하여 법궤를 가져왔습니다(24절). 그러나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서원을 방자하여 왕권을 도모했지만, 다윗은 도피 중에서도 자신의 왕권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온전히 맡겼습니다(25절). 압살롬의 반역을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했던 다윗은 그 징계 역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에 올랐습니다. 비록 오가는 대화는 없을지라도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함께 다윗의 슬픔에 동참했습니다(30절).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모반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히도벨의 지혜가 어리석게 되도록 기도했습니다(31절). 그리고 후세를 통하여 아히도벨의 지혜를 막을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윗은 기도도 무시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인 행동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통하여 아히도벨의 지혜를 무용하게 만드셨습니다(삼하 17:24).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그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면서도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후세에게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방해하는 임무를(34절),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는 압살롬의 상황을 살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36절). 이 모든 일은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임무들이었습니다. 파신 중에 있는 다윗에게 이토록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부하들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었고, 다윗과 후세의 만남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었습니다.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 기도 제목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26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27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28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29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30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31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니라 32 다윗이 감람 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33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34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새가 옷을 찢고 흠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35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36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 나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37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나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38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39 다윗의 친구 후새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본문 사무엘하 16:1~14 찬송가 342장

>>> 본문 해설

다윗은 감람산을 지날 즈음에 자기 주인인 므비보셋의 재물을 탐낸 시바의 거짓말에 속아 므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주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므비보셋은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다윗을 따라가지 못해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지만 다윗은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의 입장을 헤아리기보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말로 쉽게 결론지어 행동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또다시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으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계속 도피하던 중 바후림에 이르자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그를 저주했습니다(5~8절). 시므이는 사울의 족속으로 다윗 때문에 자기 가문이 망했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 다윗은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므이의 저주를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즉 자신의 악행의 소치로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에게서 떠난 민심을 확인하고는 슬픈 마음으로 묵묵부답 피난 길을 재촉했습니다(9~14절).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기대를 고백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과 그 고백처럼 다윗을 다시 귀환하게 하시고 그의 왕권을 회복시키셨습니다(삼하 19장). 지금 당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환경에 이끌려 가기보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십시오.

>>> 기도 제목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쉽게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1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이백 개와 건포도 백 송이와 여름 과일 백 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 지라 2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3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4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나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 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5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다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6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 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7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8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9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10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13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올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14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치라

본문 사무엘하 16:15~23 찬송가 205장

»» 본문 해설

후세는 앞서 다윗의 명대로 압살롬 정권의 기밀 탐지와 붕괴를 꾀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에 뛰어들어, 예루살렘에 들어온 압살롬을 거짓 환대했습니다(16절). 평소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압살롬은 후세의 치켜세우는 말에 더욱 교만해져 결국 멸망의 지름길을 택하였습니다. 이어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더욱 반역의 길로 치닫게 하여 다윗과의 관계를 끊고자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조언했습니다(21절). 이미 정권찬탈에 눈이 어두워진 압살롬은 율법이 엄히 금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레 18:7~8).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위 찬탈자들이 전왕의 처첩을 취하여 자신의 왕됨을 선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이 엄히 금하고 있었으며 기본적 인륜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고전 5:1).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가져오는 법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지혜로운 정치 자문위원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조언은 다윗은 물론 압살롬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지만(23절),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결국 멸망으로 가는 악한 꾀 일뿐이었습니다.

나는 후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동역자입니까? 아니면 욕심에 의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악하게 행동하는 자입니까?

»» 기도 제목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 지라 *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새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 압살롬이 후새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락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 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 그 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락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락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본문 사무엘하 17:1~14 찬송가 67장

>>> 본문 해설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을 목전에 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첫 번째 모략에서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고, 두 번째 모략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동조하고 있었으므로 아히도벨은 다윗 왕만 죽이면 나머지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몰려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2~3절). 아히도벨의 계획은 소요 병력, 시간, 공격 방법, 공격 목표, 뒤처리까지 거의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 그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4절). 그러나 압살롬은 후세의 말도 듣고자 했습니다(5절). 그리고 후세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기 위해 그의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훌륭한 전략가임을 인식시켰습니다(8절). 즉 아히도벨의 언급처럼 다윗과 그 신복이 약하고 두려워 떠는 존재(2절)가 아님을 확신시켰습니다. 다른 이유는 다윗과 그의 신복들이 어떤 함정에 잠복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해 주었습니다(9절). 즉 그는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다윗을 죽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후세의 지적은 압살롬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14절). 결국 다윗에게 치명적이었던 아히도벨의 계략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아히도벨의 논리는 정확했지만 동기와 방법이 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악한 것이었으며 그는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지략보다 후세의 충성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길과 생각과 다릅니다(사 55:8~11).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지혜대로 행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니까?

>>> 기도 제독

나의 완벽한 계획을 따르기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소서.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이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²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³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⁵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새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⁶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⁷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풀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⁸ 또 후새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꿈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⁹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엿드려서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¹⁰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아니이다¹¹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¹²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아슬이 땅에 내림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 두지 아니할 것이요¹³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어서 그 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¹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새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본문 사무엘하 17:15~29 찬송가 445장

>>> 본문 해설

다윗은 범죄로 인해 신앙, 양심, 자식, 왕권, 그리고 아내들과 신하들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절박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위로의 손길을 보내셔서 격려하셨습니다. 비록 악이 득세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후새가 서 있었습니다. 후새는 목숨을 걸고 다윗과의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또 후새를 중심으로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 그들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무명의 계집종과 여인 등이 다윗을 살리는데 서로 협력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15~22절). 아히도벨은 자기 계획이 채택되지 않자,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날 것을 미리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23절). 자기 지혜만을 의지하는 자의 최후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전쟁 준비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채 그저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25~26절).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끌려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운이 감도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통해 다윗의 쓸 것을 공급하셨습니다(27~29절). 소비는 암몬의 젊은 왕족이었으며, 마길은 한때 드비보셋을 돌보던 자였고, 바르실래는 큰 부자로서 마하나임에 망명중인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의 세심한 준비를 통해 다윗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입니다(고전 3:19~20).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순종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 지혜대로 사는 자입니까? 조용히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주변을 살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공동체에서 내가 맡은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소서.

*이에 후새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리이러하게 계락을 세웠고 나도 이리이러하게 계락을 세웠으니 *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날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 그 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브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 그 집 여인이 됴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짚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기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리이러하게 계락을 세웠나이다 *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 아히도벨이 자기 계락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며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아의 동생이더라 *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 치니라 *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논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가 * 침상과 대아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냇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본문 사무엘하 18:1~15 찬송가 212장

>>> 본문 해설

다윗은 후사가 보낸 정보에 의해 일단의 위기를 넘기기는 했지만 압살롬과의 최후의 결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끝까지 다윗을 쫓아와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과 대치하여 길르앗에 진을 쳤기 때문입니다(17:24~26). 그러나 다윗은 그가 받았던 격려 때문인지 전열을 정비하고 자신이 직접 나가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1~2절).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도 나타났습니다(3절). 그리고 다윗은 성문에서 출전하는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4절). 이런 모습은 다윗 군대의 정신적인 승리를 예고해 주었습니다. 서로 출선수범하고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는 어떤 도전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사랑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5절). 압살롬은 아버지의 생명을 노렸지만,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악을 끝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십니다. 드디어 전투가 벌어졌고, 패역한 반란자들에게 공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에브라임 수풀은 마치 하나님이 매설해 놓으신 함정과도 같아서, 압살롬 군대는 전투로 입은 피해보다 수풀을 이동하며 당한 피해가 더 많았습니다(6~8절).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머리털에 의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9절). 압살롬의 죽음은 반역을 불사했던 그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잠 16:9). 인간적인 자랑거리는 교만을 가져오고 결국 수치와 패망의 원인이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¹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²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삼분의 일은 요압의 휘하에, 삼분의 일은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삼분의 일은 가드 사람 잇대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³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시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 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⁴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백 명씩 천 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⁵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⁶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⁷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 날 그 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이만 명에 이르렀고 ⁸그 땅에서 시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 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⁹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며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¹⁰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¹¹요압이 그 일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¹²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였나이다 ¹³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¹⁴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¹⁵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죽이니라

》》》 목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본문 마가복음 14:22~31 찬송가 143장

>>> 본문 해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다락방에 모여 다음 날 있을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축복하시며 제자들에게 “내 몸”이라 하셨고, 또 포도주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22~24절). 이렇게 열두 명의 제자들이 모여 예수님의 공생애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감람 산에 가셨을 때에, 주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27절). 여기에 대해 베드로는 다른 이들이 다 주님을 배반하더라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29, 31절). 하지만 돌아온 것은 답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답변이었습니다(30절).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진정한 제자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사도들도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이후부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주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부활한 주님을 경험한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지 스스로 답해 보아야 합니다.

>>> 기도 제목

부활한 예수님을 인생 속에서 만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²⁸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²⁹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
 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³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³¹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
 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³² 이에 그
 들이 찬미하고 감람 산으로 가니라 ³³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
 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³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³⁵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³⁶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³⁷ 베드로
 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
 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

본문 마가복음 14:32~42 찬송가 157장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감람 산의 겻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직접 데리고 함께 가셨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셨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깨어 기도해 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하셨습니다(34절).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물릴 수만 있다면 물려달라는 간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이라면 그대로 순종하시겠다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습니다(36절).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을 느끼실 수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셨기에, 할 수만 있다면 받고 싶지 않다고 기도하는 솔직한 모습을 지니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셨기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36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 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37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 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8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고 39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40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41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2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43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44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45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본문 요한복음 18:28~40 찬송가 151장

>>> 본문 해설

지난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뒤에 그 자리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한밤중에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후에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셨으며, 또다시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끌려 오셨습니다(28절). 밤중에 체포되신 예수님은 새벽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무려 세 번씩이나 재판을 받는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33절), “내가 유대인이냐?”(35절), “진리가 무엇이냐?”(38절)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심문의 결론은 그가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38절). 예수님의 무죄를 확인했지만, 성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반란이 두려웠던 그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무지한 그들의 뜻대로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주님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의인이신 예수께서 나와 우리의 죄로 인해 죄인이 되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분께 경배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언제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28 그들이 예수를 가이사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29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30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1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사람은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32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33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나 35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38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39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40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본문 요한복음 19:17~27 찬송가 150장

》》 본문 해설

십자가 처형의 형벌을 선고받은 예수님께 골고다 언덕에서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조롱과 모욕 속에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골고다 언덕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모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죄명을 쓴 패를 걸러고 했습니다(19절). 이때에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21절). 무지하고 우매한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종교지도자들은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비극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과 속옷까지도 취하여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2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자신보다는 남겨질 어머니 마리아를 더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며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27절).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죄로 인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 수치와 모욕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수치와 모욕을 몸소 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 기도 제목

나를 위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사랑 안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5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 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6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7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8 예수께서 못 박하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9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10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11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12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13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14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15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16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본문 요한복음 19:28~37 찬송가 154장

>>> 본문 해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운명하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는 모습을 십자가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28절, 시 69:21). 드디어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시어 “다 이루었다”하시며 운명하셨습니다(30절). 주님의 인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영혼이 떠난 예수님의 시신을 뼈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최종 사망을 확인했습니다(34절). 뼈가 꺾이지 않은 것(출 12:46, 민 9:12, 시 34:20) 역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룬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 전날이었고, 안식일에 주님의 시체를 십자가에 달아놓을 수 없으니 신속한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 이전에 채찍질로 온 몸을 견딜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항상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28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
 시니라 31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
 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32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33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4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
 게 하려 함이니라 36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
 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7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
 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본문 누가복음 23:50~56 찬송가 146장

>>> 본문 해설

영혼이 떠나간 예수님의 시신을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장사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50절). 그는 예수님을 처벌하는 결의안에 동참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마 27:57). 그는 빌라도에게 나아가 당당하게 주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자 공회 의원으로서 자신의 모든 지위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빈 무덤을 골라 정성껏 장례를 행했습니다(53절).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저주하고 외면한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비록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제자인 사실을 숨겼지만(요 19:38), 공회 의원의 신분으로 당당히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여 장례를 준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으로, 어둠에서 생명으로 인도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만 합니다.

>>> 기도 제목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예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30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31 (그들의 결의와 행
 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
 라를 기다리는 자라 32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33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니 34 이 날
 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35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
 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36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나를 보리라

본문 마태복음 28:1~10 찬송가 160장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1절).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었고, 이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5~8절). 여인들이 두려움과 떨림, 기쁨과 감격으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갈 때에, 주님은 이 여인들을 부활한 모습으로 만나주셨습니다(9~10절). 부활한 주님은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직접 경험케 하셨습니다(5, 7, 10절). 이렇게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경험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비록 무덤을 찾아올 때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들이었지만, 부활한 주님을 직접 경험한 이후로는 이들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한 주님의 소식을 전한 천사와 부활의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19~21절)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우리들은 주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이 사명 앞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예수님의 명령을 깨달아, 주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이 사명을 붙잡고 생활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¹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²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³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⁴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어져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 ⁵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하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⁶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⁷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⁸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⁹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¹⁰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본문 사무엘하 21:1~9 찬송가 336장

>>> 본문 해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에 3년간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간구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의 정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는 항상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고 그분의 뜻을 간구했습니다(1절).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 앞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기근은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범죄의 결과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 그는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어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수 9장). 이 계약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맺은 계약이었지만, 이들과의 계약을 어기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범죄를 하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는 즉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3절). 그들은 자신을 학살한 사울의 자손 중 일곱 명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6절). 다윗은 그 청을 듣고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제외시키고, 사울의 첩 리스바의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다섯 아들을 넘겨주었습니다(7~9절). 기브온 사람들은 이들을 모두 죽여 복수를 했습니다(9절).

이처럼 죄의 결과는 무섭고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댓가를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도 살아계십니다.

>>> 기도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삼 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²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이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³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와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라’⁴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 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⁵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므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므홀랏 사람 바르실래의 아들 아드리에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⁶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 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본문 사무엘하 21:10~22 찬송가 301장

>>> 본문 해설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사울의 범죄에 대한 대가로 그의 일곱 명의 자손(사울의 첩 리스바의 두 아들,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낳은 다섯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는 이때 죽은 두 아들을 위해 굶은 베옷을 입고, 수개월 동안 그 시체를 새와 들짐승으로부터 지켰습니다(10절). 비록 사울의 첩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아버지 사울의 범죄로 죽임을 당한 두 아들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며, 두 아들의 시신이라도 온전히 지켜주려는 모정이 있었습니다. 이같은 리스바의 행동이 다윗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11절). 다윗의 마음은 애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르앗 아베스에 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와서 베냐민 지파의 땅 셸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례를 치렀습니다(14절). 일찍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산 전투에서 참패했습니다. 사울은 부상을 당한 뒤에 스스로 자결했고, 요나단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전사했습니다(삼상 31:8). 이때 블레셋 군사들은 사울의 시신에서 목을 베어 뱀산 성벽에 못박아 두었는데,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취하여 그 뼈를 장사지내 준 적이 있었습니다(삼상 31:13). 다윗이 그 뼈를 되찾아 적절한 자리에 다시 묻어주었습니다. 다윗의 이같은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총을 내리셨습니다(14절). 특히 블레셋과의 네 번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15~22절).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뜻을 간구했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그가 다스리는 백성과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힘입어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삶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 기도 제목

나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야아의 딸 리스바가 굶은 베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있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야아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아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뱀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 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삼백 세겔 되는 놋 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논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죽이니 그 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곁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브개는 거인족의 아들 중의 삼을 쳐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곁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아례오르김의 아들 엘한안은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베를 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 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여섯 개씩 모두 스물 네 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하므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본문 사무엘하 22:1~18 찬송가 300장

>>> 본문 해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때에 따라 도우시고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가 경험하고 고백했던 하나님은 반석, 요새, 건지는 자, 피할 바위,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등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든든한 하나님이심을 찬양했습니다(2~3절). 다윗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을 사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는 기름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미친 척도 해야 했고,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의 안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아둘람 동굴, 십 광야, 엔게디 바위 골짜기 등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기 위해 도망을 다녔던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요단강을 건너 도망을 가야 했고,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죽는 슬픔을 당하기도 했으며, 이스라엘 열 지파와 유다의 분열로 인한 세바의 반역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삶의 여정들을 겪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망의 물결, 멸망의 홍수, 지옥의 줄, 사망의 올무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찬양했던 것입니다(5~6절).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사망과 절망에서 생명과 회복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성도의 삶입니다. 인생에 외롭고 지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찾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 기도 제목

주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만을 붙잡는 성숙한 신앙을 보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코났은 지지는 온사

영광의 신비한 이야기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며 *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지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지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도다 *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도 *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며 그 불에 숲이 피었도다 *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 구름을 타고 날으심이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뿔뿔한 구름으로 둘러 장막을 삼으심이며 *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숲불이 피었도다 *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렛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심이며 *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흠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본문 사무엘하 22:19~35 찬송가 304장

》》 본문 해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때에 따라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다윗은 약해서 혼자서는 대적들을 이길 수 없었고, 곤경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습니다(19절). 이러한 도우심 앞에 다윗은 즉각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언제나 도와주셨습니다(20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율례를 버리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22~24절).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를 나타내셨고, 그분의 완전함을 보이셨습니다(26절). 이러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과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찬양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하셨다는 그의 고백은 이러한 그의 신앙과 믿음이 바탕에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34~36절).

이처럼 다윗의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개입하신다는 믿음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모습이야말로 참된 복음을 누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 기도 제목

나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에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에 되게 하옵소서.

*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구원하셨도다 *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 이는 내가 여호와와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라 *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
 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
 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 여호와 외에 누가 하
 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나 *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
 에 세우시며 *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못 활을 당기도다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3월 1일 화요일

2 Samuel 10:1~8

- 1 In the course of time, the king of the Ammonites died, and his son Hanun succeeded him as king.
- 2 David thought, "I will show kindness to Hanun son of Nahash, just as his father showed kindness to me." So David sent a delegation to express his sympathy to Hanun concerning his father. When David's men came to the land of the Ammonites,
- 3 the Ammonite nobles said to Hanun their lord, "Do you think David is honoring your father by sending men to you to express sympathy? Hasn't David sent them to you to explore the city and spy it out and overthrow it?"
- 4 So Hanun seized David's men, shaved off half of each man's beard, cut off their garments in the middle at the buttocks, and sent them away.
- 5 When David was told about this, he sent messengers to meet the men, for they were greatly humiliated. The king said, "Stay at Jericho till your beards have grown, and then come back."
- 6 When the Ammonites realized that they had become a stench in David's nostrils, they hired twenty thousand Aramean foot soldiers from Beth Rehob and Zobah, as well as the king of Maacah with a thousand men, and also twelve thousand men from Tob.
- 7 On hearing this, David sent Joab out with the entire army of fighting men.
- 8 The Ammonites came out and drew up in battle formation at the entrance to their city gate, while the Arameans of Zobah and Rehob and the men of Tob and Maacah were by themselves in the open country.

3월 2일 수요일

2 Samuel 10:9~19

- 9 Joab saw that there were battle lines in front of him and behind him; so he selected some of the best troops in Israel and deployed them against the Arameans.
- 10 He put the rest of the men under the command of Abishai his brother and

deployed them against the Ammonites.

- 11 Joab said, "If the Arameans are too strong for me, then you are to come to my rescue; but if the Ammonites are too strong for you, then I will come to rescue you."
- 12 Be strong and let us fight bravely for our people and the cities of our God. The LORD will do what is good in his sight."
- 13 Then Joab and the troops with him advanced to fight the Arameans, and they fled before him.
- 14 When the Ammonites saw that the Arameans were fleeing, they fled before Abishai and went inside the city. So Joab returned from fighting the Ammonites and came to Jerusalem.
- 15 After the Arameans saw that they had been routed by Israel, they regrouped.
- 16 Hadadezer had Arameans brought from beyond the River; they went to Helam, with Shobach the commander of Hadadezer's army leading them.
- 17 When David was told of this, he gathered all Israel, crossed the Jordan and went to Helam. The Arameans formed their battle lines to meet David and fought against him.
- 18 But they fled before Israel, and David killed seven hundred of their charioteers and forty thousand of their foot soldiers. He also struck down Shobach the commander of their army, and he died there.
- 19 When all the kings who were vassals of Hadadezer saw that they had been defeated by Israel, they made peace with the Israelites and became subject to them. So the Arameans were afraid to help the Ammonites anymore.

3월 3일 목요일

2 Samuel 11:1~13

- 1 In the spring, at the time when kings go off to war, David sent Joab out with the king's men and the whole Israelite army. They destroyed the Ammonites and besieged Rabbah. But David remained in Jerusalem.
- 2 One evening David got up from his bed and walked around on the roof of the palace. From the roof he saw a woman bathing. The woman was very beautiful,

- 3 and David sent someone to find out about her. The man said, "Isn't this Bathsheba, the daughter of Eliam and the wife of Uriah the Hittite?"
- 4 Then David sent messengers to get her. She came to him, and he slept with her. (She had purified herself from her uncleanness.) Then she went back home.
- 5 The woman conceived and sent word to David, saying, "I am pregnant."
- 6 So David sent this word to Joab: "Send me Uriah the Hittite." And Joab sent him to David.
- 7 When Uriah came to him, David asked him how Joab was, how the soldiers were and how the war was going.
- 8 Then David said to Uriah, "Go down to your house and wash your feet." So Uriah left the palace, and a gift from the king was sent after him.
- 9 But Uriah slept at the entrance to the palace with all his master's servants and did not go down to his house.
- 10 When David was told, "Uriah did not go home," he asked him, "Haven't you just come from a distance? Why didn't you go home?"
- 11 Uriah said to David, "The ark and Israel and Judah are staying in tents, and my master Joab and my lord's men are camped in the open fields. How could I go to my house to eat and drink and lie with my wife? As surely as you live, I will not do such a thing!"
- 12 Then David said to him, "Stay here one more day, and tomorrow I will send you back." So Uriah remained in Jerusalem that day and the next.
- 13 At David's invitation, he ate and drank with him, and David made him drunk. But in the evening Uriah went out to sleep on his mat among his master's servants; he did not go home.
- withdraw from him so he will be struck down and die."
- 16 So while Joab had the city under siege, he put Uriah at a place where he knew the strongest defenders were.
- 17 When the men of the city came out and fought against Joab, some of the men in David's army fell; moreover, Uriah the Hittite died.
- 18 Joab sent David a full account of the battle.
- 19 He instructed the messenger: "When you have finished giving the king this account of the battle,
- 20 the king's anger may flare up, and he may ask you, 'Why did you get so close to the city to fight? Didn't you know they would shoot arrows from the wall?'
- 21 Who killed Abimelech son of Jerub-Besheth? Didn't a woman throw an upper millstone on him from the wall, so that he died in Thebez? Why did you get so close to the wall?' If he asks you this, then say to him, 'Also, your servant Uriah the Hittite is dead.'"
- 22 The messenger set out, and when he arrived he told David everything Joab had sent him to say.
- 23 The messenger said to David, "The men overpowered us and came out against us in the open, but we drove them back to the entrance to the city gate.
- 24 Then the archers shot arrows at your servants from the wall, and some of the king's men died. Moreover, your servant Uriah the Hittite is dead."
- 25 David told the messenger, "Say this to Joab: 'Don't let this upset you; the sword devours one as well as another. Press the attack against the city and destroy it.' Say this to encourage Joab."
- 26 When Uriah's wife heard that her husband was dead, she mourned for him.
- 27 After the time of mourning was over, David had her brought to his house, and she became his wife and bore him a son. But the thing David had done displeased the LORD.

3월 4일 금요일

2 Samuel 11:14~27

- 14 In the morning David wrote a letter to Joab and sent it with Uriah.
- 15 In it he wrote, "Put Uriah in the front line where the fighting is fiercest. Then

3월 5일 토요일

2 Samuel 12:1~12

- 1 The LORD sent Nathan to David. When he came to him, he said, "There were two men in a certain town, one rich and the other poor.
- 2 The rich man had a very large number of sheep and cattle,
- 3 but the poor man had nothing except one little ewe lamb he had bought. He raised it, and it grew up with him and his children. It shared his food, drank from his cup and even slept in his arms. It was like a daughter to him.
- 4 "Now a traveler came to the rich man, but the rich man refrained from taking one of his own sheep or cattle to prepare a meal for the traveler who had come to him. Instead, he took the ewe lamb that belonged to the poor man and prepared it for the one who had come to him."
- 5 David burned with anger against the man and said to Nathan, "As surely as the LORD lives, the man who did this deserves to die!
- 6 He must pay for that lamb four times over, because he did such a thing and had no pity."
- 7 Then Nathan said to David, "You are the man!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I anointed you king over Israel, and I delivered you from the hand of Saul.
- 8 I gave your master's house to you, and your master's wives into your arms. I gave you the house of Israel and Judah. And if all this had been too little, I would have given you even more.
- 9 Why did you despise the word of the LORD by doing what is evil in his eyes? You struck down Uriah the Hittite with the sword and took his wife to be your own. You killed him with the sword of the Ammonites.
- 10 Now, therefore, the sword will never depart from your house, because you despised me and took the wife of Uriah the Hittite to be your own.'
- 11 "This is what the LORD says: 'Out of your own household I am going to bring calamity upon you. Before your very eyes I will take your wives and give them to one

who is close to you, and he will lie with your wives in broad daylight.

- 12 You did it in secret, but I will do this thing in broad daylight before all Israel.' "

3월 6일 주일

2 Samuel 12:13~31

- 13 Then David said to Nathan,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Nathan replied, "The LORD has taken away your sin. You are not going to die.
- 14 But because by doing this you have made the enemies of the LORD show utter contempt, the son born to you will die."
- 15 After Nathan had gone home, the LORD struck the child that Uriah's wife had borne to David, and he became ill.
- 16 David pleaded with God for the child. He fasted and went into his house and spent the nights lying on the ground.
- 17 The elders of his household stood beside him to get him up from the ground, but he refused, and he would not eat any food with them.
- 18 On the seventh day the child died. David's servants were afraid to tell him that the child was dead, for they thought, "While the child was still living, we spoke to David but he would not listen to us. How can we tell him the child is dead? He may do something desperate."
- 19 David noticed that his servants were whispering among themselves and he realized the child was dead. "Is the child dead?" he asked. "Yes," they replied, "he is dead."
- 20 Then David got up from the ground. After he had washed, put on lotions and changed his clothes, he went into the house of the LORD and worshiped. Then he went to his own house, and at his request they served him food, and he ate.
- 21 His servants asked him, "Why are you acting this way? While the child was alive, you fasted and wept, but now that the child is dead, you get up and eat!"
- 22 He answered, "While the child was still alive, I fasted and wept. I thought, 'Who knows? The LORD may be gracious to me and let

the child live.'

- 23 But now that he is dead, why should I fast? Can I bring him back again? I will go to him, but he will not return to me."
- 24 Then David comforted his wife Bathsheba, and he went to her and lay with her. She gave birth to a son, and they named him Solomon. The LORD loved him;
- 25 and because the LORD loved him, he sent word through Nathan the prophet to name him Jedidiah.
- 26 Meanwhile Joab fought against Rabbah of the Ammonites and captured the royal citadel.
- 27 Joab then sent messengers to David, saying, "I have fought against Rabbah and taken its water supply.
- 28 Now muster the rest of the troops and besiege the city and capture it. Otherwise I will take the city, and it will be named after me."
- 29 So David mustered the entire army and went to Rabbah, and attacked and captured it.
- 30 He took the crown from the head of their king--its weight was a talent of gold, and it was set with precious stones--and it was placed on David's head. He took a great quantity of plunder from the city
- 31 and brought out the people who were there, consigning them to labor with saws and with iron picks and axes, and he made them work at brickmaking. He did this to all the Ammonite towns. Then David and his entire army returned to Jerusalem.

3월 7일 월요일

2 Samuel 13:1~14

- 1 In the course of time, Amnon son of David fell in love with Tamar, the beautiful sister of Absalom son of David.
- 2 Amnon became frustrated to the point of illness on account of his sister Tamar, for she was a virgin, and it seemed impossible for him to do anything to her.
- 3 Now Amnon had a friend named Jonadab son of Shimeah, David's brother. Jonadab was a very shrewd man.
- 4 He asked Amnon, "Why do you, the king's

son, look so haggard morning after morning? Won't you tell me?" Amnon said to him, "I'm in love with Tamar, my brother Absalom's sister."

- 5 "Go to bed and pretend to be ill," Jonadab said. "When your father comes to see you, say to him, 'I would like my sister Tamar to come and give me something to eat. Let her prepare the food in my sight so I may watch her and then eat it from her hand.'"
- 6 So Amnon lay down and pretended to be ill. When the king came to see him, Amnon said to him, "I would like my sister Tamar to come and make some special bread in my sight, so I may eat from her hand."
- 7 David sent word to Tamar at the palace: "Go to the house of your brother Amnon and prepare some food for him."
- 8 So Tamar went to the house of her brother Amnon, who was lying down. She took some dough, kneaded it, made the bread in his sight and baked it.
- 9 Then she took the pan and served him the bread, but he refused to eat. "Send everyone out of here," Amnon said. So everyone left him.
- 10 Then Amnon said to Tamar, "Bring the food here into my bedroom so I may eat from your hand." And Tamar took the bread she had prepared and brought it to her brother Amnon in his bedroom.
- 11 But when she took it to him to eat, he grabbed her and said, "Come to bed with me, my sister."
- 12 "Don't, my brother!" she said to him. "Don't force me. Such a thing should not be done in Israel! Don't do this wicked thing."
- 13 What about me? Where could I get rid of my disgrace? And what about you? You would be like one of the wicked fools in Israel. Please speak to the king; he will not keep me from being married to you."
- 14 But he refused to listen to her, and since he was stronger than she, he raped her.

3월 8일 화요일

2 Samuel 13:15~29

15 Then Amnon hated her with intense hatred. In fact, he hated her more than he had loved her. Amnon said to her, "Get up and get out!"

16 "No!" she said to him. "Sending me away would be a greater wrong than what you have already done to me." But he refused to listen to her.

17 He called his personal servant and said, "Get this woman out of here and bolt the door after her."

18 So his servant put her out and bolted the door after her. She was wearing a richly ornamented robe, for this was the kind of garment the virgin daughters of the king wore.

19 Tamar put ashes on her head and tore the ornamented robe she was wearing. She put her hand on her head and went away, weeping aloud as she went.

20 Her brother Absalom said to her, "Has that Amnon, your brother, been with you? Be quiet now, my sister; he is your brother. Don't take this thing to heart." And Tamar lived in her brother Absalom's house, a desolate woman.

21 When King David heard all this, he was furious.

22 Absalom never said a word to Amnon, either good or bad; he hated Amnon because he had disgraced his sister Tamar.

23 Two years later, when Absalom's sheepshearers were at Baal Hazor near the border of Ephraim, he invited all the king's sons to come there.

24 Absalom went to the king and said, "Your servant has had shearers come. Will the king and his officials please join me?"

25 "No, my son," the king replied. "All of us should not go; we would only be a burden to you." Although Absalom urged him, he still refused to go, but gave him his blessing.

26 Then Absalom said, "If not, please let my brother Amnon come with us." The king asked him, "Why should he go with you?"

27 But Absalom urged him, so he sent with him Amnon and the rest of the king's sons.

28 Absalom ordered his men, "Listen! When Amnon is in high spirits from drinking wine and I say to you, 'Strike Amnon down,' then kill him. Don't be afraid. Have not I given you this order? Be strong and brave."

29 So Absalom's men did to Amnon what Absalom had ordered. Then all the king's sons got up, mounted their mules and fled.

3월 9일 수요일

2 Samuel 13:30~39

30 While they were on their way, the report came to David: "Absalom has struck down all the king's sons; not one of them is left."

31 The king stood up, tore his clothes and lay down on the ground; and all his servants stood by with their clothes torn.

32 But Jonadab son of Shimeah, David's brother, said, "My lord should not think that they killed all the princes; only Amnon is dead. This has been Absalom's expressed intention ever since the day Amnon raped his sister Tamar."

33 My lord the king should not be concerned about the report that all the king's sons are dead. Only Amnon is dead."

34 Meanwhile, Absalom had fled. Now the man standing watch looked up and saw many people on the road west of him, coming down the side of the hill. The watchman went and told the king, "I see men in the direction of Horonaim, on the side of the hill."

35 Jonadab said to the king, "See, the king's sons are here; it has happened just as your servant said."

36 As he finished speaking, the king's sons came in, wailing loudly. The king, too, and all his servants wept very bitterly.

37 Absalom fled and went to Talmai son of Ammihud, the king of Geshur. But King David mourned for his son every day.

38 After Absalom fled and went to Geshur, he stayed there three years.

39 And the spirit of the king longed to go to Absalom, for he was consoled concerning Amnon's death.

3월 10일 목요일

2 Samuel 14:1~11

- 1 Joab son of Zeruiah knew that the king's heart longed for Absalom.
- 2 So Joab sent someone to Tekoa and had a wise woman brought from there. He said to her, "Pretend you are in mourning. Dress in mourning clothes, and don't use any cosmetic lotions. Act like a woman who has spent many days grieving for the dead.
- 3 Then go to the king and speak these words to him." And Joab put the words in her mouth.
- 4 When the woman from Tekoa went to the king, she fell with her face to the ground to pay him honor, and she said, "Help me, O king!"
- 5 The king asked her, "What is troubling you?" She said, "I am indeed a widow; my husband is dead.
- 6 I your servant had two sons. They got into a fight with each other in the field, and no one was there to separate them. One struck the other and killed him.
- 7 Now the whole clan has risen up against your servant; they say, 'Hand over the one who struck his brother down, so that we may put him to death for the life of his brother whom he killed; then we will get rid of the heir as well.' They would put out the only burning coal I have left, leaving my husband neither name nor descendant on the face of the earth."
- 8 The king said to the woman, "Go home, and I will issue an order in your behalf."
- 9 But the woman from Tekoa said to him, "My lord the king, let the blame rest on me and on my father's family, and let the king and his throne be without guilt."
- 10 The king replied, "If anyone says anything to you, bring him to me, and he will not bother you again."
- 11 She said, "Then let the king invoke the LORD his God to prevent the avenger of blood from adding to the destruction, so that my son will not be destroyed." "As surely as the LORD lives," he said, "not one hair of your son's head will fall to the ground."

3월 11일 금요일

2 Samuel 14:12~24

- 12 Then the woman said, "Let your servant speak a word to my lord the king." "Speak," he replied.
- 13 The woman said, "Why then have you devised a thing like this against the people of God? When the king says this, does he not convict himself, for the king has not brought back his banished son?"
- 14 Like water spilled on the ground, which cannot be recovered, so we must die. But God does not take away life; instead, he devises ways so that a banished person may not remain estranged from him.
- 15 "And now I have come to say this to my lord the king because the people have made me afraid. Your servant thought, 'I will speak to the king; perhaps he will do what his servant asks.'
- 16 Perhaps the king will agree to deliver his servant from the hand of the man who is trying to cut off both me and my son from the inheritance God gave us."
- 17 "And now your servant says, 'May the word of my lord the king bring me rest, for my lord the king is like an angel of God in discerning good and evil. May the LORD your God be with you.'"
- 18 Then the king said to the woman, "Do not keep from me the answer to what I am going to ask you." "Let my lord the king speak," the woman said.
- 19 The king asked, "Isn't the hand of Joab with you in all this?" The woman answered, "As surely as you live, my lord the king, no one can turn to the right or to the left from anything my lord the king says. Yes, it was your servant Joab who instructed me to do this and who put all these words into the mouth of your servant."
- 20 Your servant Joab did this to change the present situation. My lord has wisdom like that of an angel of God--he knows everything that happens in the land."
- 21 The king said to Joab, "Very well, I will do it. Go, bring back the young man Absalom."
- 22 Joab fell with his face to the ground to pay him honor, and he blessed the king. Joab

said, "Today your servant knows that he has found favor in your eyes, my lord the king, because the king has granted his servant's request."

23 Then Joab went to Geshur and brought Absalom back to Jerusalem.

24 But the king said, "He must go to his own house; he must not see my face." So Absalom went to his own house and did not see the face of the king.

3월 12일 토요일

2 Samuel 14:25~33

25 In all Israel there was not a man so highly praised for his handsome appearance as Absalom. From the top of his head to the sole of his foot there was no blemish in him.

26 Whenever he cut the hair of his head--he used to cut his hair from time to time when it became too heavy for him--he would weigh it, and its weight was two hundred shekels by the royal standard.

27 Three sons and a daughter were born to Absalom. The daughter's name was Tamar, and she became a beautiful woman.

28 Absalom lived two years in Jerusalem without seeing the king's face.

29 Then Absalom sent for Joab in order to send him to the king, but Joab refused to come to him. So he sent a second time, but he refused to come.

30 Then he said to his servants, "Look, Joab's field is next to mine, and he has barley there. Go and set it on fire." So Absalom's servants set the field on fire.

31 Then Joab did go to Absalom's house and he said to him, "Why have your servants set my field on fire?"

32 Absalom said to Joab, "Look, I sent word to you and said, 'Come here so I can send you to the king to ask, 'Why have I come from Geshur? It would be better for me if I were still there!' ' Now then, I want to see the king's face, and if I am guilty of anything, let him put me to death.'"

33 So Joab went to the king and told him this. Then the king summoned Absalom, and he came in and bowed down with his face to the ground before the king. And the king

kissed Absalom.

3월 13일 주일

2 Samuel 15:1~12

1 In the course of time, Absalom provided himself with a chariot and horses and with fifty men to run ahead of him.

2 He would get up early and stand by the side of the road leading to the city gate. Whenever anyone came with a complaint to be placed before the king for a decision, Absalom would call out to him, "What town are you from?" He would answer, "Your servant is from one of the tribes of Israel."

3 Then Absalom would say to him, "Look, your claims are valid and proper, but there is no representative of the king to hear you."

4 And Absalom would add, "If only I were appointed judge in the land! Then everyone who has a complaint or case could come to me and I would see that he gets justice."

5 Also, whenever anyone approached him to bow down before him, Absalom would reach out his hand, take hold of him and kiss him.

6 Absalom behaved in this way toward all the Israelites who came to the king asking for justice, and so he stole the hearts of the men of Israel.

7 At the end of four years, Absalom said to the king, "Let me go to Hebron and fulfill a vow I made to the LORD.

8 While your servant was living at Geshur in Aram, I made this vow: 'If the LORD takes me back to Jerusalem, I will worship the LORD in Hebron.'"

9 The king said to him, "Go in peace." So he went to Hebron.

10 Then Absalom sent secret messengers throughout the tribes of Israel to say, "As soon as you hear the sound of the trumpets, then say, 'Absalom is king in Hebron.'"

11 Two hundred men from Jerusalem had accompanied Absalom. They had been invited as guests and went quite innocently, knowing nothing about the matter.

12 While Absalom was offering sacrifices, he also sent for Ahithophel the Gilonite, David's counselor, to come from Giloh, his

hometown. And so the conspiracy gained strength, and Absalom's following kept on increasing.

3월 14일 월요일

2 Samuel 15:13~23

- 13 A messenger came and told David, "The hearts of the men of Israel are with Absalom."
- 14 Then David said to all his officials who were with him in Jerusalem, "Come! We must flee, or none of us will escape from Absalom. We must leave immediately, or he will move quickly to overtake us and bring ruin upon us and put the city to the sword."
- 15 The king's officials answered him, "Your servants are ready to do whatever our lord the king chooses."
- 16 The king set out, with his entire household following him; but he left ten concubines to take care of the palace.
- 17 So the king set out, with all the people following him, and they halted at a place some distance away.
- 18 All his men marched past him, along with all the Kerethites and Pelethites; and all the six hundred Gittites who had accompanied him from Gath marched before the king.
- 19 The king said to Ittai the Gittite, "Why should you come along with us? Go back and stay with King Absalom. You are a foreigner, an exile from your homeland."
- 20 You came only yesterday. And today shall I make you wander about with us, when I do not know where I am going? Go back, and take your countrymen. May kindness and faithfulness be with you."
- 21 But Ittai replied to the king, "As surely as the LORD lives, and as my lord the king lives, wherever my lord the king may be, whether it means life or death, there will your servant be."
- 22 David said to Ittai, "Go ahead, march on." So Ittai the Gittite marched on with all his men and the families that were with him.
- 23 The whole countryside wept aloud as all the people passed by. The king also crossed the Kidron Valley, and all the people moved on

toward the desert.

3월 15일 화요일

2 Samuel 15:24~37

- 24 Zadok was there, too, and all the Levites who were with him were carrying the ark of the covenant of God. They set down the ark of God, and Abiathar offered sacrifices until all the people had finished leaving the city.
- 25 Then the king said to Zadok, "Take the ark of God back into the city. If I find favor in the LORD's eyes, he will bring me back and let me see it and his dwelling place again."
- 26 But if he says, 'I am not pleased with you,' then I am ready; let him do to me whatever seems good to him."
- 27 The king also said to Zadok the priest, "Aren't you a seer? Go back to the city in peace, with your son Ahimaaz and Jonathan son of Abiathar. You and Abiathar take your two sons with you."
- 28 I will wait at the fords in the desert until word comes from you to inform me."
- 29 So Zadok and Abiathar took the ark of God back to Jerusalem and stayed there.
- 30 But David continued up the Mount of Olives, weeping as he went; his head was covered and he was barefoot. All the people with him covered their heads too and were weeping as they went up.
- 31 Now David had been told, "Ahithophel is among the conspirators with Absalom." So David prayed, "O LORD, turn Ahithophel's counsel into foolishness."
- 32 When David arrived at the summit, where people used to worship God, Hushai the Arkite was there to meet him, his robe torn and dust on his head.
- 33 David said to him, "If you go with me, you will be a burden to me."
- 34 But if you return to the city and say to Absalom, 'I will be your servant, O king; I was your father's servant in the past, but now I will be your servant,' then you can help me by frustrating Ahithophel's advice."
- 35 Won't the priests Zadok and Abiathar be there with you? Tell them anything you hear in the king's palace."
- 36 Their two sons, Ahimaaz son of Zadok and

Jonathan son of Abiathar, are there with them. Send them to me with anything you hear."

- 37 So David's friend Hushai arrived at Jerusalem as Absalom was entering the city.

3월 16일 수요일

2 Samuel 16:1~14

- 1 When David had gone a short distance beyond the summit, there was Ziba, the steward of Mephibosheth, waiting to meet him. He had a string of donkeys saddled and loaded with two hundred loaves of bread, a hundred cakes of raisins, a hundred cakes of figs and a skin of wine.
- 2 The king asked Ziba, "Why have you brought these?" Ziba answered, "The donkeys are for the king's household to ride on, the bread and fruit are for the men to eat, and the wine is to refresh those who become exhausted in the desert."
- 3 The king then asked, "Where is your master's grandson?" Ziba said to him, "He is staying in Jerusalem, because he thinks, 'Today the house of Israel will give me back my grandfather's kingdom.'"
- 4 Then the king said to Ziba, "All that belonged to Mephibosheth is now yours." "I humbly bow," Ziba said. "May I find favor in your eyes, my lord the king."
- 5 As King David approached Bahurim, a man from the same clan as Saul's family came out from there. His name was Shimei son of Gera, and he cursed as he came out.
- 6 He pelted David and all the king's officials with stones, though all the troops and the special guard were on David's right and left.
- 7 As he cursed, Shimei said, "Get out, get out, you man of blood, you scoundrel!"
- 8 The LORD has repaid you for all the blood you shed in the household of Saul, in whose place you have reigned. The LORD has handed the kingdom over to your son Absalom. You have come to ruin because you are a man of blood!"
- 9 Then Abishai son of Zeruiah said to the king, "Why should this dead dog curse my lord the king? Let me go over and cut off his

head."

- 10 But the king said, "What do you and I have in common, you sons of Zeruiah? If he is cursing because the LORD said to him, 'Curse David,' who can ask, 'Why do you do this?'"
- 11 David then said to Abishai and all his officials, "My son, who is of my own flesh, is trying to take my life. How much more, then, this Benjamite! Leave him alone; let him curse, for the LORD has told him to."
- 12 It may be that the LORD will see my distress and repay me with good for the cursing I am receiving today."
- 13 So David and his men continued along the road while Shimei was going along the hillside opposite him, cursing as he went and throwing stones at him and showering him with dirt.
- 14 The king and all the people with him arrived at their destination exhausted. And there he refreshed himself.

3월 17일 목요일

2 Samuel 16:15~23

- 15 Meanwhile, Absalom and all the men of Israel came to Jerusalem, and Ahithophel was with him.
- 16 Then Hushai the Arkite, David's friend, went to Absalom and said to him, "Long live the king! Long live the king!"
- 17 Absalom asked Hushai, "Is this the love you show your friend? Why didn't you go with your friend?"
- 18 Hushai said to Absalom, "No, the one chosen by the LORD, by these people, and by all the men of Israel--his I will be, and I will remain with him."
- 19 Furthermore, whom should I serve? Should I not serve the son? Just as I served your father, so I will serve you."
- 20 Absalom said to Ahithophel, "Give us your advice. What should we do?"
- 21 Ahithophel answered, "Lie with your father's concubines whom he left to take care of the palace. Then all Israel will hear that you have made yourself a stench in your father's nostrils, and the hands of everyone with you will be strengthened."

22 So they pitched a tent for Absalom on the roof, and he lay with his father's concubines in the sight of all Israel.

23 Now in those days the advice Ahithophel gave was like that of one who inquires of God. That was how both David and Absalom regarded all of Ahithophel's advice.

3월 18일 금요일

2 Samuel 17:1~14

1 Ahithophel said to Absalom, "I would choose twelve thousand men and set out tonight in pursuit of David.

2 I would attack him while he is weary and weak. I would strike him with terror, and then all the people with him will flee. I would strike down only the king

3 and bring all the people back to you. The death of the man you seek will mean the return of all; all the people will be unharmed."

4 This plan seemed good to Absalom and to all the elders of Israel.

5 But Absalom said, "Summon also Hushai the Arkite, so we can hear what he has to say."

6 When Hushai came to him, Absalom said, "Ahithophel has given this advice. Should we do what he says? If not, give us your opinion."

7 Hushai replied to Absalom, "The advice Ahithophel has given is not good this time.

8 You know your father and his men; they are fighters, and as fierce as a wild bear robbed of her cubs. Besides, your father is an experienced fighter; he will not spend the night with the troops.

9 Even now, he is hidden in a cave or some other place. If he should attack your troops first, whoever hears about it will say, 'There has been a slaughter among the troops who follow Absalom.'

10 Then even the bravest soldier, whose heart is like the heart of a lion, will melt with fear, for all Israel knows that your father is a fighter and that those with him are brave.

11 "So I advise you: Let all Israel, from Dan to Beersheba--as numerous as the sand on

the seashore--be gathered to you, with you yourself leading them into battle.

12 Then we will attack him wherever he may be found, and we will fall on him as dew settles on the ground. Neither he nor any of his men will be left alive.

13 If he withdraws into a city, then all Israel will bring ropes to that city, and we will drag it down to the valley until not even a piece of it can be found."

14 Absalom and all the men of Israel said, "The advice of Hushai the Arkite is better than that of Ahithophel." For the LORD had determined to frustrate the good advice of Ahithophel in order to bring disaster on Absalom.

3월 19일 토요일

2 Samuel 17:15~29

15 Hushai told Zadok and Abiathar, the priests, "Ahithophel has advised Absalom and the elders of Israel to do such and such, but I have advised them to do so and so.

16 Now send a message immediately and tell David, 'Do not spend the night at the fords in the desert; cross over without fail, or the king and all the people with him will be swallowed up.'"

17 Jonathan and Ahimaaz were staying at En Rogel. A servant girl was to go and inform them, and they were to go and tell King David, for they could not risk being seen entering the city.

18 But a young man saw them and told Absalom. So the two of them left quickly and went to the house of a man in Bahurim. He had a well in his courtyard, and they climbed down into it.

19 His wife took a covering and spread it out over the opening of the well and scattered grain over it. No one knew anything about it.

20 When Absalom's men came to the woman at the house, they asked, "Where are Ahimaaz and Jonathan?" The woman answered them, "They crossed over the brook." The men searched but found no one, so they returned to Jerusalem.

21 After the men had gone, the two climbed out of the well and went to inform King

David. They said to him, "Set out and cross the river at once; Ahithophel has advised such and such against you."

22 So David and all the people with him set out and crossed the Jordan. By daybreak, no one was left who had not crossed the Jordan.

23 When Ahithophel saw that his advice had not been followed, he saddled his donkey and set out for his house in his hometown. He put his house in order and then hanged himself. So he died and was buried in his father's tomb.

24 David went to Mahanaim, and Absalom crossed the Jordan with all the men of Israel.

25 Absalom had appointed Amasa over the army in place of Joab. Amasa was the son of a man named Jether, an Israelite who had married Abigail, the daughter of Nahash and sister of Zeruiah the mother of Joab.

26 The Israelites and Absalom camped in the land of Gilead.

27 When David came to Mahanaim, Shobi son of Nahash from Rabbah of the Ammonites, and Makir son of Ammiel from Lo Debar, and Barzillai the Gileadite from Rogelim

28 brought bedding and bowls and articles of pottery. They also brought wheat and barley, flour and roasted grain, beans and lentils,

29 honey and curds, sheep, and cheese from cows' milk for David and his people to eat. For they said, "The people have become hungry and tired and thirsty in the desert."

3월 20일 주일

2 Samuel 18:1~15

1 David mustered the men who were with him and appointed over them commanders of thousands and commanders of hundreds.

2 David sent the troops out--a third under the command of Joab, a third under Joab's brother Abishai son of Zeruiah, and a third under Ittai the Gittite. The king told the troops, "I myself will surely march out with you."

3 But the men said, "You must not go out; if we are forced to flee, they won't care about us. Even if half of us die, they won't care; but you are worth ten thousand of us. It would be better now for you to give us support from the city."

4 The king answered, "I will do whatever seems best to you." So the king stood beside the gate while all the men marched out in units of hundreds and of thousands.

5 The king commanded Joab, Abishai and Ittai, "Be gentle with the young man Absalom for my sake." And all the troops heard the king giving orders concerning Absalom to each of the commanders.

6 The army marched into the field to fight Israel, and the battle took place in the forest of Ephraim.

7 There the army of Israel was defeated by David's men, and the casualties that day were great--twenty thousand men.

8 The battle spread out over the whole countryside, and the forest claimed more lives that day than the sword.

9 Now Absalom happened to meet David's men. He was riding his mule, and as the mule went under the thick branches of a large oak, Absalom's head got caught in the tree. He was left hanging in midair, while the mule he was riding kept on going.

10 When one of the men saw this, he told Joab, "I just saw Absalom hanging in an oak tree."

11 Joab said to the man who had told him this, "What! You saw him? Why didn't you strike him to the ground right there? Then I would have had to give you ten shekels of silver and a warrior's belt."

12 But the man replied, "Even if a thousand shekels were weighed out into my hands, I would not lift my hand against the king's son. In our hearing the king commanded you and Abishai and Ittai, 'Protect the young man Absalom for my sake.'"

13 And if I had put my life in jeopardy --and nothing is hidden from the king--you would have kept your distance from me."

14 Joab said, "I'm not going to wait like this for you." So he took three javelins in his hand and plunged them into Absalom's heart

while Absalom was still alive in the oak tree.
15 And ten of Joab's armor-bearers surrounded Absalom, struck him and killed him.

3월 21일 월요일

Mark 14:22~31

- 22 While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gave thanks and broke it, and gave it to his disciples, saying, "Take it; this is my body."
23 Then he took the cup, gave thanks and offered it to them, and they all drank from it.
24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he said to them.
25 "I tell you the truth, I will not drink again of the fruit of the vine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anew in the kingdom of God."
26 When they had sung a hymn, they went out to the Mount of Olives.
27 "You will all fall away," Jesus told them, "for it is written: 'I will strike the shepherd, and the sheep will be scattered.'
28 But after I have risen, I will go ahead of you into Galilee."
29 Peter declared, "Even if all fall away, I will not."
30 "I tell you the truth," Jesus answered, "today--yes, tonight--before the rooster crows twice you yourself will disown me three times."
31 But Peter insisted emphatically, "Even if I have to die with you, I will never disown you." And all the others said the same.

3월 22일 화요일

Mark 14:32~42

- 32 They went to a place called Gethsemane, and Jesus said to his disciples, "Sit here while I pray."
33 He took Peter, James and John along with him, and he began to be deeply distressed and troubled.
34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he said to them. "Stay here and keep watch."
35 Going a little farther, he fell to the ground and prayed that if possible the hour might pass from him.

36 "Abba, Father," he said, "everything is possible for you. Take this cup from me. Yet not what I will, but what you will."

37 Then he returned to his disciples and found them sleeping. "Simon," he said to Peter, "are you asleep? Could you not keep watch for one hour?"

38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body is weak."

39 Once more he went away and prayed the same thing.

40 When he came back, he again found them sleeping, because their eyes were heavy. They did not know what to say to him.

41 Returning the third time, he said to them, "Are you still sleeping and resting? Enough! The hour has come. Look, the Son of Man is betrayed into the hands of sinners.

42 Rise! Let us go! Here comes my betrayer!"

3월 23일 수요일

John 18:28~40

28 Then the Jews led Jesus from Caiaphas to the palace of the Roman governor. By now it was early morning, and to avoid ceremonial uncleanness the Jews did not enter the palace; they wanted to be able to eat the Passover.

29 So Pilate came out to them and asked, "What charges are you bringing against this man?"

30 "If he were not a criminal," they replied, "we would not have handed him over to you."

31 Pilate said, "Take him yourselves and judge him by your own law." "But we have no right to execute anyone," the Jews objected.

32 This happened so that the words Jesus had spoken indicating the kind of death he was going to die would be fulfilled.

33 Pilate then went back inside the palace, summoned Jesus and asked him,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34 "Is that your own idea," Jesus asked, "or did others talk to you about me?"

35 "Am I a Jew?" Pilate replied. "It was your people and your chief priests who handed you over to me. What is it you have done?"

36 Jesus said,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If it were, my servants would fight to prevent my arrest by the Jews. But now my kingdom is from another place."

- 37 "You are a king, then!" said Pilate. Jesus answered, "You are right in saying I am a king. In fact, for this reason I was born, and for this I came into the world, to testify to the truth. Everyone on the side of truth listens to me."
- 38 "What is truth?" Pilate asked. With this he went out again to the Jews and said, "I find no basis for a charge against him."
- 39 But it is your custom for me to release to you one prisoner at the time of the Passover. Do you want me to release 'the king of the Jews'?"
- 40 They shouted back, "No, not him! Give us Barabbas!" Now Barabbas had taken part in a rebellion.

3월 24일 목요일

John 19:17~27

- 17 Carrying his own cross, he went out to the place of the Skull (which in Aramaic is called Golgotha).
- 18 Here they crucified him, and with him two others--one on each side and Jesus in the middle.
- 19 Pilate had a notice prepared and fastened to the cross. It read: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THE JEWS.
- 20 Many of the Jews read this sign, for the place where Jesus was crucified was near the city, and the sign was written in Aramaic, Latin and Greek.
- 21 The chief priests of the Jews protested to Pilate, "Do not write 'The King of the Jews,' but that this man claimed to be king of the Jews."
- 22 Pilate answered, "What I have written, I have written."
- 23 When the soldiers crucified Jesus, they took his clothes, dividing them into four shares, one for each of them, with the undergarment remaining. This garment was seamless, woven in one piece from top to bottom.
- 24 "Let's not tear it," they said to one another. "Let's decide by lot who will get it." This

happened that the scripture might be fulfilled which said, "They divided my garments among them and cast lots for my clothing." So this is what the soldiers did.

- 25 Near the cross of Jesus stood his mother, his mother's sister, Mary the wife of Clopas, and Mary Magdalene.
- 26 When Jesus saw his mother there, and the disciple whom he loved standing nearby, he said to his mother, "Dear woman, here is your son,"
- 27 and to the disciple, "Here is your mother." From that time on, this disciple took her into his home.

3월 25일 금요일

John 19:28~37

- 28 Later, knowing that all was now completed, and so that the Scripture would be fulfilled, Jesus said, "I am thirsty."
- 29 A jar of wine vinegar was there, so they soaked a sponge in it, put the sponge on a stalk of the hyssop plant, and lifted it to Jesus' lips.
- 30 When he had received the drink, Jesus said, "It is finished." With that,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his spirit.
- 31 Now it was the day of Preparation, and the next day was to be a special Sabbath. Because the Jews did not want the bodies left on the crosses during the Sabbath, they asked Pilate to have the legs broken and the bodies taken down.
- 32 The soldiers therefore came and broke the legs of the first man who had been crucified with Jesus, and then those of the other.
- 33 But when they came to Jesus and found that he was already dead, they did not break his legs.
- 34 Instead, one of the soldiers pierced Jesus' side with a spear, bringing a sudden flow of blood and water.
- 35 The man who saw it has given testimony, and his testimony is true. He knows that he tells the truth, and he testifies so that you also may believe.
- 36 These things happened so that the scripture would be fulfilled: "Not one of his bones will be broken,"

37 and, as another scripture says, "They will look on the one they have pierced."

3월 26일 토요일

Luke 23:50~56

50 Now there was a man named Joseph, a member of the Council, a good and upright man,

51 who had not consented to their decision and action. He came from the Judean town of Arimathea and he was waiting for the kingdom of God.

52 Going to Pilate, he asked for Jesus' body.

53 Then he took it down, wrapped it in linen cloth and placed it in a tomb cut in the rock, one in which no one had yet been laid.

54 It was Preparation Day, and the Sabbath was about to begin.

55 The women who had come with Jesus from Galilee followed Joseph and saw the tomb and how his body was laid in it.

56 Then they went home and prepared spices and perfumes. But they rested on the Sabbath in obedience to the commandment.

3월 27일 주일

Matthew 28:1~10

1 After the Sabbath, at dawn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went to look at the tomb.

2 There was a violent earthquake, for an angel of the Lord came down from heaven and, going to the tomb, rolled back the stone and sat on it.

3 His appearance was like lightning, and his clothes were white as snow.

4 The guards were so afraid of him that they shook and became like dead men.

5 The angel said to the women, "Do not be afraid, for I know that you are looking for Jesus, who was crucified.

6 He is not here; he has risen, just as he said. Come and see the place where he lay.

7 Then go quickly and tell his disciples: 'He has risen from the dead and is going ahead of you in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Now I have told you."

8 So the women hurried away from the

tomb, afraid yet filled with joy, and ran to tell his disciples.

9 Suddenly Jesus met them. "Greetings," he said. They came to him, clasped his feet and worshiped him.

10 Then Jesus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Go and tell my brothers to go to Galilee; there they will see me."

3월 28일 월요일

2 Samuel 21:1~9

1 During the reign of David, there was a famine for three successive years; so David sought the face of the LORD. The LORD said, "It is on account of Saul and his blood-stained house; it is because he put the Gibeonites to death."

2 The king summoned the Gibeonites and spoke to them. (Now the Gibeonites were not a part of Israel but were survivors of the Amorites; the Israelites had sworn to spare them, but Saul in his zeal for Israel and Judah had tried to annihilate them.)

3 David asked the Gibeonites, "What shall I do for you? How shall I make amends so that you will bless the LORD's inheritance?"

4 The Gibeonites answered him, "We have no right to demand silver or gold from Saul or his family, nor do we have the right to put anyone in Israel to death."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David asked.

5 They answered the king, "As for the man who destroyed us and plotted against us so that we have been decimated and have no place anywhere in Israel,

6 let seven of his male descendants be given to us to be killed and exposed before the LORD at Gibeah of Saul--the LORD's chosen one." So the king said, "I will give them to you."

7 The king spared Mephibosheth son of Jonathan, the son of Saul, because of the oath before the LORD between David and Jonathan son of Saul.

8 But the king took Armoni and Mephibosheth, the two sons of Aiah's daughter Rizpah, whom she had borne to Saul, together with the five sons of Saul's daughter Merab, whom she had borne to

Adriel son of Barzillai the Meholathite.

- 9 He handed them over to the Gibeonites, who killed and exposed them on a hill before the LORD. All seven of them fell together; they were put to death during the first days of the harvest, just as the barley harvest was beginning.

3월 29일 화요일

2 Samuel 21:10~22

- 10 Rizpah daughter of Aiah took sackcloth and spread it out for herself on a rock. From the beginning of the harvest till the rain poured down from the heavens on the bodies, she did not let the birds of the air touch them by day or the wild animals by night.
- 11 When David was told what Aiah's daughter Rizpah, Saul's concubine, had done,
- 12 he went and took the bones of Saul and his son Jonathan from the citizens of Jabesh Gilead. (They had taken them secretly from the public square at Beth Shan, where the Philistines had hung them after they struck Saul down on Gilboa.)
- 13 David brought the bones of Saul and his son Jonathan from there, and the bones of those who had been killed and exposed were gathered up.
- 14 They buried the bones of Saul and his son Jonathan in the tomb of Saul's father Kish, at Zela in Benjamin, and did everything the king commanded. After that, God answered prayer in behalf of the land.
- 15 Once again there was a battle between the Philistines and Israel. David went down with his men to fight against the Philistines, and he became exhausted.
- 16 And Ishbi-Benob, one of the descendants of Rapha, whose bronze spearhead weighed three hundred shekels and who was armed with a new sword, said he would kill David.
- 17 But Abishai son of Zeruiah came to David's rescue; he struck the Philistine down and killed him. Then David's men swore to him, saying, "Never again will you go out with us to battle, so that the lamp of Israel will not be extinguished."
- 18 In the course of time, there was another battle with the Philistines, at Gob. At that

time Sibbecai the Hushathite killed Saph, one of the descendants of Rapha.

- 19 In another battle with the Philistines at Gob, Elhanan son of Jaare-Oregim the Bethlehemite killed Goliath the Gittite, who had a spear with a shaft like a weaver's rod.
- 20 In still another battle, which took place at Gath, there was a huge man with six fingers on each hand and six toes on each foot--twenty-four in all. He also was descended from Rapha.
- 21 When he taunted Israel, Jonathan son of Shimeah, David's brother, killed him.
- 22 These four were descendants of Rapha in Gath, and they fell at the hands of David and his men.

3월 30일 수요일

2 Samuel 22:1~18

- 1 David sang to the LORD the words of this song when the LORD delivered him from the hand of all his enemies and from the hand of Saul.
- 2 He said: "The LORD is my rock, my fortress and my deliverer;
- 3 my God is my rock, in whom I take refuge, my shield and the horn of my salvation. He is my stronghold, my refuge and my savior--from violent men you save me.
- 4 I call to the LORD, who is worthy of praise, and I am saved from my enemies.
- 5 "The waves of death swirled about me; the torrents of destruction overwhelmed me.
- 6 The cords of the grave coiled around me; the snares of death confronted me.
- 7 In my distress I called to the LORD; I called out to my God. From his temple he heard my voice; my cry came to his ears.
- 8 "The earth trembled and quaked, the foundations of the heavens shook; they trembled because he was angry.
- 9 Smoke rose from his nostrils; consuming fire came from his mouth, burning coals blazed out of it.
- 10 He parted the heavens and came down; dark clouds were under his feet.
- 11 He mounted the cherubim and flew; he soared on the wings of the wind.
- 12 He made darkness his canopy around h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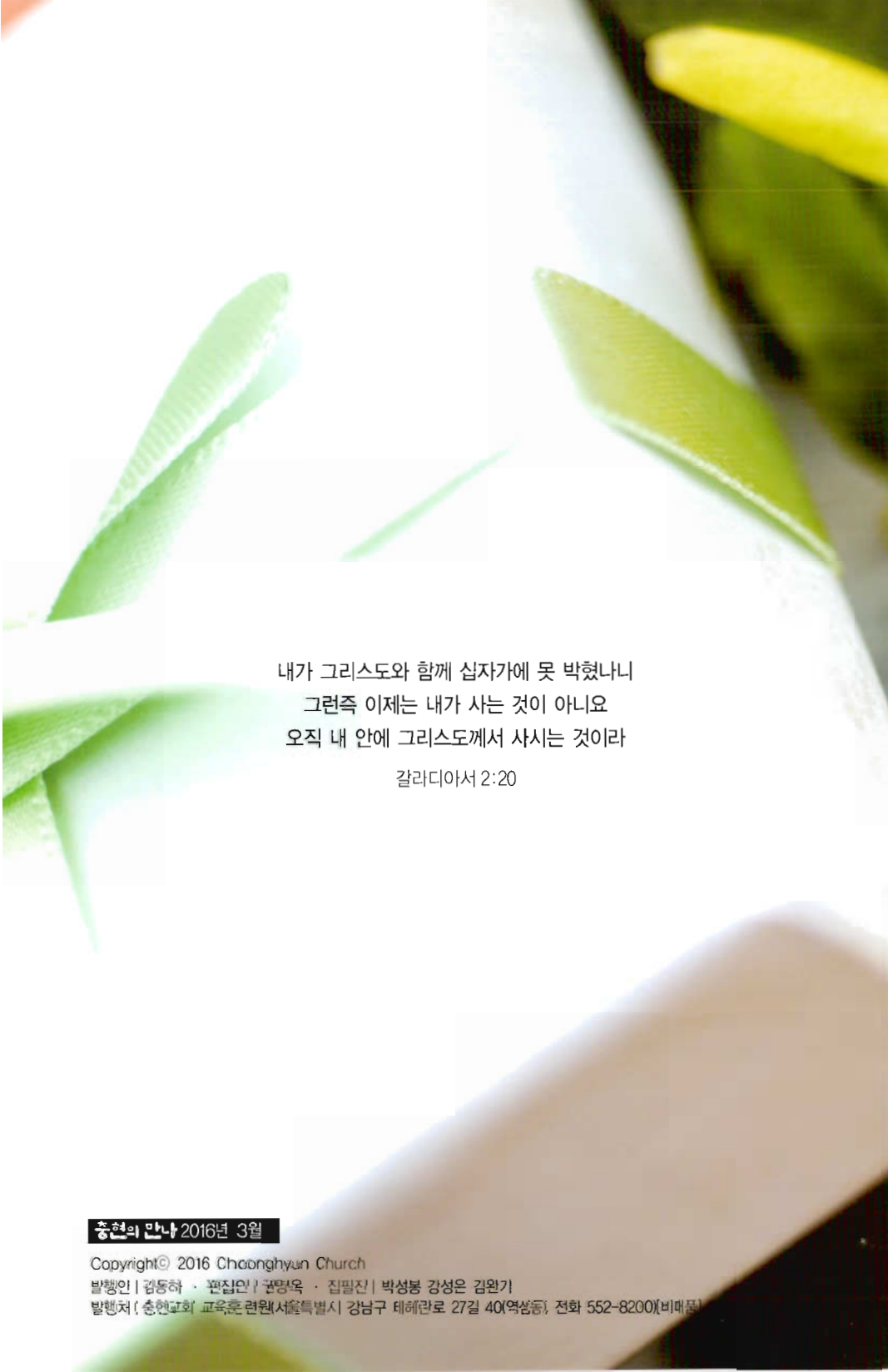
- the dark rain clouds of the sky.
- 13 Out of the brightness of his presence bolts of lightning blazed forth.
- 14 The LORD thundered from heaven; the voice of the Most High resounded.
- 15 He shot arrows and scattered the enemies, bolts of lightning and routed them.
- 16 The valleys of the sea were exposed and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laid bare at the rebuke of the LORD, at the blast of breath from his nostrils.
- 17 "He reached down from on high and took hold of me; he drew me out of deep waters.
- 18 He rescued me from my powerful enemy, from my foes, who were too strong for me.

- 32 For who is God besides the LORD? And who is the Rock except our God?
- 33 It is God who arms me with strength and makes my way perfect.
- 34 He makes my feet like the feet of a deer; he enables me to stand on the heights.
- 35 He trains my hands for battle; my arms can bend a bow of bronze.

3월 31일 목요일

2 Samuel 22:19~35

- 19 They confronted me in the day of my disaster, but the LORD was my support.
- 20 He brought me out into a spacious place; he rescued me because he delighted in me.
- 21 "The LORD has dealt with me according to my righteousness; according to the cleanness of my hands he has rewarded me.
- 22 For I have kept the ways of the LORD; I have not done evil by turning from my God.
- 23 All his laws are before me; I have not turned away from his decrees.
- 24 I have been blameless before him and have kept myself from sin.
- 25 The LORD has rewarded me according to my righteousness, according to my cleanness in his sight.
- 26 "To the faithful you show yourself faithful, to the blameless you show yourself blameless,
- 27 to the pure you show yourself pure, but to the crooked you show yourself shrewd.
- 28 You save the humble, but your eyes are on the haughty to bring them low.
- 29 You are my lamp, O LORD; the LORD turns my darkness into light.
- 30 With your help I can advance against a troop; with my God I can scale a wall.
- 31 "As for God, his way is perfect; the word of the LORD is flawless. He is a shield for all who take refuge in him.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충현의 만나 2016년 3월

Copyright© 2016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 편집인 | 권영욱 · 집필진 | 박성봉 강성은 김원기

발행처 | 충현교회 교육훈련원(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역삼동), 전화 552-8200)(비매물)